

## Sermon: The Precious Blood

### ■ 오늘의 본문말씀 : 베드로전서 1:18-19

Today's main verses are 1 Peter 1:18-19. 오늘의 주 성경구절은 베드로전서 1:18-19절입니다.

『1 Peter 1:18-19』<sup>18</sup> Forasmuch as ye know that ye were not redeemed with corruptible things, [as] silver and gold, from your vain conversation [received] by tradition from your fathers; <sup>19</sup>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s of a lamb without blemish and without spot:

『베드로전서 1:18-19』<sup>18</sup>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sup>19</sup>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 1 Introduction 서론

Let me ask you a question.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will come out if you squeeze the Bible?” 성경을 쥐어 짜면 무엇이 나올까요?

It seems to be a very silly question. 아주 바보같은 질문 같습니다.

However, it is one of the questions that many ancestors of faith have been asking frequently to their congregations while they were preaching. 하지만, 이것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설교할 때 청중들에게 자주 물었던 질문입니다.

The answer is like this. 대답은 이렇습니다.

If you open the Bible, the blood of animals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in the New Testament are overflowing everywhere. 성경을 열면, 거기에는 구약의 짐승의 피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서나 넘쳐납니다.

So, red color, which usually symbolizes blood, used to be painted on the borders of the Bible. 그래서, 보통 피를 상징하는 붉은 색이 성경의 가장자리에 칠해져 있는 적이 많았습니다.

Although nowadays we can see many Bibles decorated with gold color, which means glory, it is absolutely undeniable that the Bible is essentially a “book of blood.” 요즘에는 영광을 상징하는 금색으로 장식된 많은 성경들을 볼 수 있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피의 책”임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This is because the Bible itself testifies that the Word of God is not wearing gorgeous and fancy clothes, but just a vesture dipped in blood, as Revelation 19:13 says, 이는 요한계시록 19:13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있지 아니하고 피에 담근 의복을 걸치고 있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Revelation 19:13』<sup>13</sup> And he [was] clothed with a vesture dipped in blood: and his name is called The Word of God.

『요한계시록 19:13』<sup>13</sup>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In addition, the Bible can be said to be a “living organism” in which the circulation of blood continues, 또한, 성경은 그 안에서 피가 계속 순환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because the Bible,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lso life is in the blood, as Hebrews 4:12a and Leviticus 17:11a say, 왜냐하면 히브리서 4:12절과 레위기 17: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으며, 또한 그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Hebrews 4:12a』<sup>12</sup> For the word of God [is] quick (which is alive), and powerful, and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히브리서 4:12a』<sup>12</sup>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Leviticus 17:11a』<sup>11</sup> For the life of the flesh [is] in the blood...

『레위기 17:11a』<sup>11</sup>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And also the Bible can be said to be the only “spring of salvation” from which flows the blood of Christ, which cleanses all our sins unto salvation. 그리고 또 성경은 유일한 “구원의 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은

로부터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나와,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This is because the Bible promises that “rivers of living water will flow” if we were redeemed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s John 7:38 says, 이는 요한복음 7:3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는다면, “생수의 강물이 흐르리라”라고 성경이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John 7:38』<sup>38</sup> *He that believeth on me, as the scripture hath said, out of his belly sha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요한복음 7:38』<sup>38</sup>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Now, I, therefore, want to speak a message entitled “The Precious Blood” to give an answer to the questions about the blood as follows. 따라서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피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보배로운 피”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Why did God intend the river of blood to flow through the whole Bible? 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성경 전체를 통해 피의 강이 흐르도록 하셨을까?

Why did God intend His Words to be connected with blood?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들이 피와 연결되도록 하셨을까?

And why did God design life only through blood, especially everlasting life only throug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피를 통한 생명,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설계하셨을까?

\*\*\* Let's pray \*\*\*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perfect Word of Truth to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this morning. Please have mercy upon us and help us to know more and better the Precious Blo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this preaching. In Jesus' name I pray. Amen.

## 2 Life 생명

Let me ask you a question.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How did Adam become a living soul? 아담은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까?

First of all, let's consider the scene in which God made a man out of the dust of the ground and then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to keep him alive, as Genesis 2:7 says, 먼저, 하나님께서 땅의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를 살게 하신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7절입니다.

『Genesis 2:7』<sup>7</sup> *And the LORD God formed man [of]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soul.*

『창세기 2:7』<sup>7</sup>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Human bodies such as brain, heart, lungs, stomach, liver, kidneys, etc. must have already been made perfectly. 뇌, 심장, 폐, 위, 간, 신장 등과 같은 인간의 몸은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If so, what could make these human organs and tissues live and function properly at the same time?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인간의 장기와 조직들이 살아서 완벽히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수 있었을까요?

It was because of the blood. 그것은 피 때문이었습니다.

In other words, it was because the blood that travels around the body started to circulate. 다시 말해서, 몸 구석구석 피가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When God's breath entered into Adam, all organs, tissues, and cells in his body were supplied with oxygen and various nutrients through the blood, and then began to function to exhibit life phenomena. 하나님의 숨이 아담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몸 안에 모든 장기, 조직, 세포들이 피를 통해 산소와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받았고, 그 때 생명 현상이 나타나도록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By the way, Adam who gained life through blood as such, was able to live an eternal life in the Garden of Eden. 그런데, 이같이 피를 통해 생명을 얻은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었습니다.

However, as you know so well, he ate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bidden by God and returned to the dust at the age of 930, as Genesis 5:5 says,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하나

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창세기 5:5절의 말씀과 같이 930세의 나이로 흠으로 돌아갔습니다

『Genesis 5:5』<sup>5</sup> *And all the days that Adam lived were nine hundred and thirty years: and he died.*

『창세기 5:5』<sup>5</sup> 아담의 전 생애는 구백삼십 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So to speak, because of sin, Adam's blood began to corrupt and he lost eternal life. 말하자면, 죄로 인해, 아담의 피가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In addition, all of Adam's descendants, who were subsequently born in sin in the likeness and image of Adam, became unable to have eternal life due to the corrupt blood (SIN+) inherited from Adam, as Genesis 5:3a and Romans 3:23 say, 이에 더해,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을 닮은 모습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아담의 모든 자손들도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부패한 피(죄 플러스 형)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3절과 로마서 3: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Genesis 5:3a』<sup>3</sup> *And Adam lived an hundred and thirty years, and begat [a son] in his own likeness, after his image;*

『창세기 5:3a』<sup>3</sup> ◀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Romans 3:23』<sup>23</sup>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로마서 3:23』<sup>23</sup>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In other words, the inevitable destiny of mankind, which leads to not only physical death but also spiritual death, began through the first man Adam in the Garden of Eden, as Romans 5:12 says, 다시 말해서, 육신적 죽음 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는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에덴동산의 첫째 사람 아담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5:12절은 말합니다.

『Romans 5:12』<sup>12</sup> *Wherefore, as by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by sin; and so death passed upon all men, for that all have sinned:*

『로마서 5:12』<sup>12</sup>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As such, after Adam's fall, the worst happened in the universe: 이와 같이, 아담의 타락 이후, 최악의 일들이 우주에 일어났습니다:

This means that if a soul cannot convert his or her corrupt blood (SIN+) into the innocent blood (SIN-), he or she will face the second death in the lake of fire, as Romans 6:23a and Revelation 21:8 say, 이것은 만일 어떤 혼이 자신의 부패한 피(죄+)를 죄없는 피(죄-)로 바꾸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호수에서의 둘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6:23절과 요한계시록 21:8절은 말합니다.

『Romans 6:23a』<sup>23</sup>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로마서 6:23a』<sup>23</sup> 죄의 삯은 사망이나

『Revelation 21:8』<sup>8</sup> *But the fearful, and unbelieving, and the abominable, and murderers, and whoremongers, and sorcerers, and idolaters, and all liars, shall have their part in the lake which burneth with fire and brimstone: which is the second death.*

『요한계시록 21:8』<sup>8</sup>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 3 Gospel 복음

Let me ask you a question.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What was the message that the God of love proclaimed immediately after Adam's fall?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직후 선포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God spoke to Adam and Eve the good news that they would be able to recover from the spiritual death or the second death, as Genesis 3:15 says,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이 영적인 죽음 혹은 둘째 죽음에서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좋은 소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15절입니다.

『Genesis 3:15』<sup>15</sup>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thee and the woman, and between thy seed and her seed; it shall bruise thy head, and thou shalt bruise his heel.*

『창세기 3:15』<sup>15</sup>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This means that Satan will only for a moment hurt the heel of Jesus who will come as a woman's seed, but that Jesus will hurt Satan's head and have a complete victory over Satan. 이것은 사탄이 잠시 동안은 여자의 씨로서 오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So, it was the Gospel (protoevangelium) that was proclaimed by God immediately after Adam's fall. 그래서, 이것이 아담의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원형복음)입니다.

In other words, the blessed news (gospel) was given to all mankind that Jesus will shed His "innocent blood" (SIN-) on the cross and be resurrected on the third day to completely destroy the power of death and hell. (Matthew 27:4; 1 Corinthians 15:1-4) 다시 말해서, 복된 소식(복음)이 온 인류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무죄한 피(죄-)"를 흘리시고 사흘째 다시 살아나시어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4; 고린도전서 15:1-4)

Then God instantaneously made coats of skins, and clothed Adam and Eve, as Genesis 3:21 says, 그 때 하나님께서는 즉석에서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이브에게 입히셨는데, 창세기 3:21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Genesis 3:21』<sup>21</sup> Unto Adam also and to his wife did the LORD God make coats of skins, and clothed them.

『창세기 3:21』<sup>21</sup>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By doing so, God presented to mankind the principle of forgiveness of sins by shedding of blood, as Hebrews 9:22 says, 히브리서 9: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피흘림의 통한 죄들의 용서라는 원칙을 인류에게 제시하셨습니다.

『Hebrews 9:22』<sup>22</sup> And almost all things are by the law purged with blood; and without shedding of blood is no remission.

『히브리서 9:22』<sup>22</sup>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Thereafter, God's plan of salvation as such, was passed on to Adam's descendants: 그 후로, 이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담의 자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Abel offered a blood sacrifice of the firstlings of his flock and was accepted by God, as Genesis 4:4 and Hebrews 11:4 say, 아벨은 자신의 가축의 첫 새끼들 가운데서 피 희생물을 가져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4절과 히브리서 11:4절은 말합니다.

『Genesis 4:4』<sup>4</sup> And Abel, he also brought of the firstlings of his flock and of the fat thereof. And the LORD had respect unto Abel and to his offering:

『창세기 4:4』<sup>4</sup>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Hebrews 11:4』<sup>4</sup> By faith Abel offered unto God a more excellent sacrifice than Cain, by which he obtained witness that he was righteous, God testifying of his gifts: and by it he being dead yet speaketh.

『히브리서 11:4』<sup>4</sup>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And Noah, who came out of the ark right after the Flood that overthrew the entire earth, offered burnt offerings of clean animals to confirm God's providence of salvation through shedding of blood, as Genesis 8:20 and 21a says, 그리고 노아는, 전 지구를 삼켜버린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와, 깨끗한 짐승을 번제헌물로 드림으로써 피흘림을 통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증하였습니다. 창세기 8:20, 21절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Genesis 8:20-21a』<sup>20</sup> And Noah builded an altar unto the LORD; and took of every clean beast, and of every clean fowl, and offered burnt offerings on the altar. <sup>21</sup> And the LORD smelled a sweet savour...;

『창세기 8:20-21a』<sup>20</sup> ¶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sup>21</sup>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

Later, when Abraham obeyed God's word to offer his son Isaac as a burnt offering, God himself prepared a ram instead of Isaac, as Genesis 22:13b says. 이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삭을 대신하여 숫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22:13절입니다.

『Genesis 22:13b』<sup>13</sup> ... and Abraham went and took the ram, and offered him up for a burnt offering in the stead of his son.

『창세기 22:13b』<sup>13</sup> ...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This shows us the redemption through the blood of the Lamb, namely the shadow of the crucifixion of Jesus. 이것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속,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박힐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And just before the Israelites escaped from Egypt, God prevented the destroyer from entering the house where the blood of the Lamb was sprinkled on the two side posts and on the upper door post, as Exodus chapter 12 says,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는 문의 양쪽 기둥과 위쪽에 어린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는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출애굽기 12장은 말합니다.

『Exodus 12:5』<sup>5</sup> Your lamb shall be without blemish, a male of the first year: ye shall take [it] out from the sheep, or from the goats:

『출애굽기 12:5』<sup>5</sup> 너희의 어린양은 흠이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Exodus 12:7』<sup>7</sup> And they shall take of the blood, and strike [it] on the two side posts and on the upper door post of the houses, wherein they shall eat it.

『출애굽기 12:7』<sup>7</sup>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의 문기둥에 뿌리고

『Exodus 12:13』<sup>13</sup> And the blood shall be to you for a token upon the houses where ye [are]: an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be upon you to destroy [you], when I smite the land of Egypt.

『출애굽기 12:13』<sup>13</sup>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Therefore, through this Passover event, God made sure once again that Jesus Christ will come as the Lamb of God to redeem us. 따라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 4 Lamb 어린 양

So, even after entering the land of Canaan, the Israelites continued to celebrate the Passover with the blood of the Lamb,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어린양의 피로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and they confirmed God's plan of salvation through shedding of blood every day through continuous sacrifices throughout the year, as Leviticus 17:11b and Hebrews 9:22 say, 그리고 그들은 년중 계속해서 매일 같이 희생물을 드려 피흘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인했는데, 레위기 17:11절과 히브리서 9:22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Leviticus 17:11b』<sup>11</sup> ...and I have given it to you upon the altar to make an atonement for your souls: for it [is] the blood [that] maketh an atonement for the soul.

『레위기 17:11b』<sup>11</sup>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Hebrews 9:22』<sup>22</sup> And almost all things are by the law purged with blood; and without shedding of blood is no remission.

『히브리서 9:22』<sup>22</sup>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Then, a long time passed, and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was come, Jesus himself put on a human body to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as Galatians 4:4 and Matthew 1:21 say,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때가 찾을 때, 예수님 자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의 백성들을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4절과 마태복음 1: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Galatians 4:4』<sup>4</sup> But when the fulness of the time was come, God sent forth his Son, made of a woman, made under the law,

『갈라디아서 4:4』<sup>4</sup>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Matthew 1:21』<sup>21</sup> And she shall bring forth a son, and thou shalt call his name JESUS: for he sha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마태복음 1:21』<sup>21</sup>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So to speak, Jesus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was born to a virgin Mary. (Matthew 1:20)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Here some may ask a couple of questions like this.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지도 모릅니다.

“Isn't it true that Jesus received Mary's blood because he was in her womb?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 안에 있었으니까 마리아의 피를 받은 것 아닌가요?”

If so, how is Jesus' blood different from Mary's or other persons'?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마리아나 다른 사람들의 피와 다르다는 건가요?”

First of all, we should remember that Jesus is God, Creator. and also that He was a SINLESS man.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또한 죄없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While all men from Adam to this day are born with Adam's sinful nature, and, therefore, are subject to the curse and eternal death, 아담으로부터 이 날까지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로 인해 저주와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하게 된 반면,

the Man Jesus was without sin and, therefore, DEATHLESS until He took the sin of others upon Himself and died THEIR death. 인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고, 따라서 그분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그들의 죽음을 죽을 때 까지는 죄가 없었습니다.

Now, while Jesus was of Adam's race according to the flesh, yet He did not inherit Adam's nature.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분은 아담의 속성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This alone will prove that sin is NOT transmitted through the flesh. 이것만을 봐도 죄는 육신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It is transmitted THROUGH THE BLOOD and not the flesh, 피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지 육체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and even though Jesus was of the “Seed of David according to the flesh” this could not make him a sinner. 예수님도 “육신에 따라 다윗의 씨”로 오셨지만, 이것이 그분을 죄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God must find a way whereby Jesus could be perfectly human according to the flesh and yet not have the blood of sinful humanity.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완벽한 인간이면서도 죄 많은 인간의 피를 갖지 않을 방법을 찾으셔야 했습니다.

That was the problem solved by THE VIRGIN BIRTH. 그 문제가 처녀탄생으로 풀린 것입니다.

Now, let's think about the origin of the blood. 이제, 피의 기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It is now definitely known that the blood which flows in an unborn baby's arteries and veins is not derived from the mother but is produced within the body of the fetus itself onl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male sperm. 태 속 아기의 동맥과 정맥 속에 흐르는 피는 엄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자의 정액이 들어간 후 생겨난 태아 자신의 몸 안에서 생성된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An unfertilized ovum can never develop blood since the female egg does not by itself contain the elements essential for the production of this blood. 수정되지 않은 난자는 결코 피를 만들어 낼 수 없는데, 이는 난자 자체는 피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In other words, although it is true that Jesus borrowed Mary's body to be a man, He did NOT receive a drop of her corrupt blood (SIN+)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인간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결코 그녀의 부패한 피(죄+)를 한 방울도 받지 않았습니다.

It's because God designed that the fetus should be supplied by its mother only with the necessary nutrients and oxygen through the placenta, 그것이 바로, 태아가 엄마에게서 태반을 통해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만을 공급 받고

and also that from the time of conception to the time of birth of the infant not ONE SINGLE DROP OF BLOOD ever passes from mother to child. 임신 때 부터 출산 때까지 피 한 방울도 엄마에게서 아기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한 이유입니다.

The anatomical configuration of the placenta prevents direct contact of maternal and fetal blood,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transport proteins, electrochemical gradients and diffusion channels for substrate

exchange across the interface. 태반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산모의 피와 태아의 피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터페이스를 통한 기질 교환을 위해 수송 단백질, 전기화학적 기울기, 확산 채널 등이 중요함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That is why Jesus, who has the “Innocent Blood” (SIN-), became a lamb without blemish and without spot, who takes away all the sins of this world, as John 1:29 says, 그것이 무죄한 피(죄-)를 가진 예수님께서서 흠 없는 어린양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John 1:29』<sup>29</sup> *The next day John seeth Jesus coming unto him, and saith,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th away the sin of the world.*

『요한복음 1:29』<sup>29</sup> ◀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Therefore, in order for us to have everlasting life, we must accept by faith the blood of Jesus Christ which is able to get rid of all sins. (1 Peter 1:18-19)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모든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5 Blessing 축복

So, what a blessing to be saved from sins by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What a blessing to become a child of God through redemption by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as Ephesians 1:7 says, 에베소서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Ephesians 1:7』<sup>7</sup>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에베소서 1:7』<sup>7</sup>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There might be tens of thousands of blessings in this world, 이 세상에는 정만 많은 종류의 축복이 있겠지만,

however, the true blessing is that we are saved from the eternal second death, and become children of God to go to heaven full of His glory.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영원한 둘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By the way, in order to understand better the plan of God’s salvation, let’s find out how the word ‘blessing’ appeared in English, or how it has been defined historically. 한 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가를 살펴봅시다.

Let’s take a look at the slide. 슬라이드를 봐 주십시오.

In Webster’s Encyclopedic Unabridged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the word ‘bless’ is originally meant to consecrate by sprinkling with blood in old English. 웹스터 영어 대사전에 보면, 축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옛 영어의 피를 뿌림으로써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Also it was used as ‘blŌdisŌnian’ in the ancient Friesland language (Old Frisian) or the ancient Saxon language (Old Saxon), where ‘blŌd’ clearly means blood. 또 이것은 옛 프리슬란트어 혹은 옛 색슨어의 블로디스오니안으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블로드는 피를 뜻합니다.

So to speak, the word ‘blood’ became the word ‘bless!’ 말하자면, 피 라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It is true that bleeding is the only way we, as sinners, can be forgiven of our sins and obtain the blessing of coming to God, as Hebrews 9:22b says, 피흘림이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히브리서 9: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without shedding of blood is no remission.”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Therefore, Jesus came to this world as the Lamb of God and shed His “Innocent Blood” (SIN-) for us on the cross! 따라서,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무죄한 피

(죄-)”를 흘리셨습니다.

## 6 Justification/Righteousness 칭의/의로움

As a result, we can also be recognized as being justified (or righteous) by God, as Romans 5:9 says, 그 결과로, 로마서 5:9절 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의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omans 5:9』<sup>9</sup> *Much more then, being now justified by his blood, we shall be saved from wrath through him.*

『로마서 5:9』<sup>9</sup>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Now, let's take a quick look at the hieroglyphic Chinese character of justification or righteousness. 그럼, 의로움을 나타내는 중국어 상형문자를 잠시 보겠습니다.

義 = 羊 + 我 (手 + 戈) 옳을 의 = 양 양 + 나 아 (손 수 + 창 과)

righteousness = sheep + me (hand + spear) 의로움 = 양 + 나 (손 + 창)

The word for righteousness 義 appears to have been derived from this original act of worship, asking forgiveness for sin. 옳을 의 자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예배행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A sheep 羊 is found in this figure, and beneath it, 我, picturing I, me, we kneeling before the Lamb of God, who alone covers me and brings righteousness. 이 글자를 보면 양 양 자가 있고 그 밑에 나를 뜻하는 아 자가 있는데, 이는 나를 덮어 의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양 아래에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This means that the Lamb, Jesus must be located above me as my Lord for me to be justified or righteous. 이것은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님께 내 위에 나의 주님으로 위치하고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In other words, the “righteous relationship with God” will be recovered when anyone receives Jesus as his or her Savior and the Lord, as Romans 3:25a and Colossians 1:20 say,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로마서 3:25절과 골로새서 1:20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Romans 3:25a』<sup>25</sup> *Whom God hath set forth [to be] a propitiation through faith in his blood...*

『로마서 3:25a』<sup>25</sup>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Colossians 1:20』<sup>20</sup> *And, having made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by him to reconcile all things unto himself; by him, [I say], whether [they be] things in earth, or things in heaven.*

『골로새서 1:20』<sup>20</sup>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Let's go back to the hieroglyphic Chinese character of justification or righteousness. 이제 의로움을 뜻하는 중국어 상형문자로 돌아가 봅시다.

Further dissection of this last character for me reveals a composite of hand 手 and a lance or spearhead 戈. 나를 뜻하는 아 자를 더 분해해 보면, 손 수 자와 창 과 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This specifies that the slaying of the lamb is by me, by my own hand, using a spearhead, indicating that my sins would bring death to the innocent Lamb of God. 이것은 양의 죽음이 나에 의한 것, 창을 사용해서 나 자신의 손에 의해 죽은 것이며, 나의 죄가 하나님의 무죄한 어린양을 죽게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et me ask you a question.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hat will flow out of the lamb if you hold it with your hand and stab it with a spear? 만일 당신이 당신의 손으로 양을 잡아 창으로 찌르면, 무엇이 흘러 나올까요?

Yes, the blood of the Lamb will flow out. 그렇습니다. 어린양의 피가 흘러 나옵니다.

So it is true that we can be justified only by the ‘innocent blood’ (SIN-) of Jesus Christ who became the Lamb. (John 1:29,36; 1 Peter 1:19; 1 John 1:7; Revelation 7:14; 12:11) 그렇듯, 우리가 어린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피(죄-)”에 의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9,36; 베드로전서 1:19; 요한일서 1:7; 요한계시록 7:14; 12:11)



## 7 Jesus' Bleeding 예수님의 피흘림

Now, let's take a concrete look at how and when Jesus bled during his public life.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언제 어떻게 피를 흘리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Firstly, Jesus shed blood by being circumcised 8 days after He was born, as Luke 2:21a says, 첫째, 예수님은 누가복음 2:21절 처럼, 태어난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피를 흘렸습니다.

『Luke 2:21a』<sup>21</sup> *And when eight days were accomplished for the circumcising of the child, his name was called JESUS...*

『누가복음 2:21a』<sup>21</sup>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찻을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This circumcision, which Jesus received on the 8th day as a sign of God's covenant with Abraham, means a spiritual new creation,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의 표시로 8일 만에 받은 이 할례는 영적인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and this 8th day is also the safest time in terms of bleeding because the concentration of prothrombin, a blood clotting factor, is highest at that day during whole lifetime of men. 그리고 8일 째는 피흘림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안전한 때이기도 한데, 이 때가 사람의 전 생애 동안 혈액 응고 인자인 프로트롬빈의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Secondly, Jesus shed blood while praying in the Garden of Gethsemane before being caught by the Jews as Luke 22:44 says, 둘째, 예수님은 누가복음 22:44절의 말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기 전에 기도하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Luke 22:44』<sup>44</sup> *And being in an agony he prayed more earnestly: and his sweat was as it were great drops of blood falling down to the ground.*

『누가복음 22:44』<sup>44</sup>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This is hematomatosis, in which capillary blood vessels that feed the sweat glands rupture, causing them to exude blood, occurring under conditions of extreme physical or emotional stress. 이것은 땀을 나르는 모세혈관이 터져 피가 스며 나오게 되는 혈한증으로, 극심한 육신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 하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From this we can see that the spiritual pain that Jesus tried to bear all the sins of mankind was so great beyond our understanding, as 2 Corinthians 5:21 says,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 Corinthians 5:21』<sup>21</sup> *For he hath made him [to be] sin for us, who knew no sin; that we might be mad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고린도후서 5:21』<sup>21</sup>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Actually, Jesus' prayer, earnestly enough to show hematomatosis in Gethsemane, would have been the driving force of victory on the cross. 사실, 겟세마네에서 혈한증을 보일만큼 간절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 위에서의 승리를 가져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 8 Blood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

Thirdly, Jesus shed blood by being whipped or scourged, as John 19:1 says, 셋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19:1절 말씀처럼,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렸습니다.

『John 19:1』<sup>1</sup> *Then Pilate therefore took Jesus, and scourged [him].*

『요한복음 19:1』<sup>1</sup> 그때에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The number of times He was whipped is not mentioned in the Bible, 그분께서 채찍을 당한 숫자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however, Jesus would have been struck enough to reveal all the muscles and bones, because whips with small pieces of metal or bone at the tips were commonly used. 하지만, 모든 근육과 뼈를 드러낼 정도로 많이 맞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에 작은 금속이나 뼈가 달려있는 채찍이 당시 흔히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Fourthly, Jesus shed blood by wearing a crown of thorns on his head, as John 19:2a says, 넷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19:2절 처럼,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셔서 피를 흘렸습니다.

『John 19:2a』<sup>2</sup> *And the soldiers platted a crown of thorns, and put [it] on his head...*

『요한복음 19:2a』<sup>2</sup>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The crown of thorns that Jesus wore on his head covered the entire head, 예수님이 머리에 쓴 가시관은 머리 전체를 덮었습니다.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length of each thorn was about 2.5 to 5 cm, 그리고 각 가시의 길이는 2.5cm에서 5cm 정도로 추정됩니다.

and head is a well-distributed area of blood vessels. 머리는 혈관이 잘 분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Accordingly, massive bleeding would have been developed by not only the crown of thorns but also Roman soldiers' smiting the head of Jesus, as Matthew 27:30 says, 따라서, 가시관 뿐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때림으로 인해 엄청난 피가 나왔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Matthew 27:30』<sup>30</sup> *And they spit upon him, and took the reed, and smote him on the head.*

『마태복음 27:30』<sup>30</sup>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Here we have to remember another thing that Roman soldiers did to Jesus when they put a crown of thorns on his head. 여기서 우리는 로마 병사들이 가시관을 그분의 머리에 씌울 때 예수님께 했던 또 다른 행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They also put on him a scarlet robe, as Matthew 27:28 says, 그들은 주홍색 옷을 그분께 입혔습니다. 마태복음 27:28절입니다.

『Matthew 27:28』<sup>28</sup> *And they stripped him, and put on him a scarlet robe.*

『마태복음 27:28』<sup>28</sup>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더라.

Let me ask you a question.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hy do you think Jesus wore a crown of thorns and also a scarlet robe at the same time?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동시에 가시관을 쓰고 주홍색 옷을 입었다고 생각합니까?

It was to make it clear that Jesus had the sins of the whole world,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because thorns are the result of the curse after Adam's fall, as Genesis 3:17b-18a says, 왜냐하면 창세기 3:17-18절의 말씀처럼, 아담의 타락 이후 저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Genesis 3:17b-18a』<sup>17</sup> *...cursed [is] the ground for thy sake; in sorrow shalt thou eat [of] it all the days of thy life;*<sup>18</sup> *Thorns also and thistles shall it bring forth to thee...*

『창세기 3:17b-18a』<sup>17</sup>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sup>18</sup>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and also scarlet symbolizes sin, as Isaiah 1:18 says, 그리고 또 주홍색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1:18절은 말합니다.

『Isaiah 1:18』<sup>18</sup> *Come now, and let us reason together, saith the LORD: though your sins be as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be red like crimson, they shall be as wool.*

『이사야 1:18』<sup>18</sup>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In other words, Jesus became sin for us. (2 Corinthians :21)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Fifthly, Jesus shed blood by being crucified with nails in his hands and feet, as Psalm 22:16 says, 다섯째, 예수님은 손과 발이 못 박힘으로써 피를 흘렸습니다.

『Psalms 22:16』<sup>16</sup> *For dogs have compassed me: the assembly of the wicked have inclosed me: they pierced my hands and my feet.*

『시편 22:16』<sup>16</sup>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It is estimated that nails with a length of up to 17-18 cm and a diameter of about 1 cm were used in crucifixion at that time. 당시 십자가 처형에 사용된 못은 길이가 17-18cm, 직경이 약 1cm로 추정됩니다.

However, none of his bones would be broken despite considerable bleeding because these large nails were stuck between the radius and the ulna or between bones of the feet, as John 19:36 says, 하지만,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이 큰 못들이 요골과 척골 사이에, 발가락 뼈 사이에 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느 뼈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니다.

『John 19:36』<sup>36</sup> *For these things were done, that the scripture should be fulfilled, A bone of him shall not be broken.*

『요한복음 19:36』<sup>36</sup>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Sixthly, Jesus shed blood by being pierced with a spear after He died, when a Roman soldier pierced his side with a spear, as John 19:34 says, 여섯 째, 예수님은 죽은 후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창에 찔림으로써 피를 흘렸습니다.

『John 19:34』<sup>34</sup> *But one of the soldiers with a spear pierced his side, and forthwith came there out blood and water.*

『요한복음 19:34』<sup>34</sup>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Probably, the pleural or pericardial fluids and the blood in the right atrium or right ventricle of the heart were pouring out enormously. 아마도 흉막 삼출액이나 심낭 유출액 및 우심방이나 우심실에 있던 피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As such, the cross on which Jesus was hung, turned into the cross that was completely stained with His blood. 이처럼,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그분의 피로 완전히 얼룩진 십자가로 변했습니다.

However, this made it possible for us to obtain the forgiveness of sins and the blessing of salvation, as 1 Peter 1:18-19 says, 하지만, 베드로전서 1:18-19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가 죄들의 용서와 구원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 Peter 1:18-19』<sup>18</sup> *Forasmuch as ye know that ye were not redeemed with corruptible things, [as] silver and gold, from your vain conversation [received] by tradition from your fathers; <sup>19</sup>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s of a lamb without blemish and without spot:*

『베드로전서 1:18-19』<sup>18</sup>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sup>19</sup>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 9 Salvation 구원

Now I would like to ask all of you a very very important question. 이제 여러분께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Do you want to get the blood of Jesus in your heart to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salvation through the power of His blood? 당신은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두어 죄의 용서를 받고 그분의 보혈의 권능을 통해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If so, please pray the following prayer to God sincerely.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Heavenly Father, Creator of all things, I have come to know that I am a sinner and deserve the punishment of eternal hell.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며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I also learned that God, who loves me, sent Jesus Christ to this world to receive all punishment and shed precious blood on behalf of me, a sinner. 또한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형벌을 받게 하시고 죄인인 저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음을 배웠습니다.

Please take pity on me and forgive me for all my sins.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Please also help me to hate all these sins. 또 제가 이 모든 죄들을 미워하도록 도와 주세요.

I admit that I cannot be saved by my efforts. 저는 저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I sincerely thank you for the grace that you sent Jesus Christ to get rid of my sins, and He was resurrected on the third day after shedding His innocent blood for me on the cross. 저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 그

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시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Now, I trust in Jesus Christ, believe in His resurrection, and receive Him as my Savior and Lord.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을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From now on, I want to continue to love the Lord, obey His commandments, lead others to Jesus, and live by the power of His precious blood. 이제부터, 저는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며 주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I pray all these things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Amen.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10 Conclusion 결론

If you sincerely pray as such, trust God's promises as Galatians 3:26 and John 10:28 say, 만일 당신이 이와 같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갈라디아서 3:26절과 요한복음 10: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Galatians 3:26』<sup>26</sup> For ye are all the children of God by faith in Christ Jesus.

『갈라디아서 3:26』<sup>26</sup>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John 10:28』<sup>28</sup> And I give unto them eternal life; and they shall never perish, neither shall any [man] pluck them out of my hand.

『요한복음 10:28』<sup>28</sup>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In addition, always remember that the Blood of Jesus Christ gives you the power to defeat sins and the Devil.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와 마귀를 물리칠 권능을 당신에게 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You will be able to live a life of victory every day. 당신은 매일같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I will finish by reading a couple of Bible verses I want all of us to memorize. 우리 모두가 암송하기를 바라는 성경구절 몇 개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Revelation 12:11』<sup>11</sup> And they overcame him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by the word of their testimony; and they loved not their lives unto the death.

『요한계시록 12:11』<sup>11</sup> 그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1 John 1:7b』<sup>7</sup>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his Son cleanseth us from all sin.

『요한1서 1:7b』<sup>7</sup>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Let's pra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I sincerely pray that all attendants here would continue to live a victorious life only by the blood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name I pray. Amen.